농·특산물 유통 23억원 투입

순창군, 생산자 통합마케팅 활성화 · 유통시설 효율화 · 수출 물류비 지원

순창군이 농·특산물 유통사업에 올해 23억여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향후 순창 농·특산물의 전국 유통확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순창 두릅이 출하되기 전부터 전국 대형 유통망과 홈쇼핑 등에 입점을 확정 하는 등 유통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블루베리, 복분자 등 곧 수확기가 다가오는 지역의 대표 특화작물 유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이 올해 농가소득 향상과 제값 받는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농·특산물 마케팅 육성 사업은 7개 분야에 23억 여원 규모다.

우선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6천여 만원을 지원한다.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관내 4개 농협이 주축이 돼서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강화, 통합브랜드 구축을 통한 마케팅 망 확대,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한다.

최근 순창산 두릅 대박성공을 이끈 사업이다.

지역농산물 유통시설 효율화 지원사업에는 5억원이 투자된다.

막걸리 등 친환경쌀을 이용한 가공시설 구축과 유통, 장류제품 가공설비 및 유통을 지원한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도 1억여원이 투자된다. 최근 중국수출에 탄력이 붙고 있는 동계 밤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판매활성화 사업에도 6천여만원을 투자한다. 대형 박람회 및 대도시, 대형유통마트 등을 직접 방문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순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4억 9천여만원을 지원해 출하시기 조절과 품질 좋은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임실군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마을공동 급식지원 추진

임실군, 영농철 앞두고 12개 읍면 32개소 대상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임실군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농번기 급식 준비로 인해 영농참여가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민선 6기 공약사업이다.

12일 임실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11월까지 올해 12개 읍면 32개소에 조리원 인건비 등을 제공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을 한 마을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조리원 인건비 외에 부식비, 위생장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은 1개소당 280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8,9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시설을 갖추고, 마을당 농업인이 15명~20명 이상인 마을이다.

군은 민선 6기 공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15년 15개 마을에 이어 지난 해 30개 마을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군은 공동급식사업인 만큼 식중독 예방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읍면장의 책임 하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시로 위생 지도 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인공동급식 등 타 급식사업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인 점을 급식장소에 표시키로 했다.

군은 특히 마을 여건에 따라 부식의 자체조달이 가능할 경우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의 차별성은 물론 합리적 운영을 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군은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늘려나가고,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마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바쁜 농번기에 급식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일손을 덜고, 농삿일에 함께 참여해 일손부족을 해결해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인 만큼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대상마을을 더욱 늘려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노인인권 인식 개선 '온 힘'

남원시 인권킴이 활동 '큰 호응'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지킴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남원시의 '인권지킴이 활동'은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3년째 추진되고 있다. 매년 2개소씩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시설의 호응과 활동 효과가 좋아 2017년도에는 생활시설 3개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권지킴이 활동'은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인권지킴이'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남원시 노인생활시설의 '인권지킴이'는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관장(서철승)의 봉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으로 약7년 간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노인생활시설 어르신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권지킴이 활동'은 인권지킴이가 자발적으로 참여 요청한 노인생활시설 3개소를 분기 1회 일정을 알리지 않고 불시에 방문하여 시설을 라운딩한 후 입소자와 즉흥면담을 통해 인권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활동 종료 후 관계 부서에 일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취약아동 대상 친구와 함께하는 로봇 교실

순창군은 취약아동 13명을 대상으로 로봇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해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 드림스타트팀은 최근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로봇과학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로봇 과학교실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기초과학 지식 및 창의적인 사고 배양을 위해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을 스스로 제작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기초, 조립방법 습득 과 메인보드를 이용한 트랜스포머 제작, 가속 기어와 IR센서를 이용한 팽이제작, 리모컨으로 조종하여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로봇축구 만들기 게임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취미활동 제공 및 소그룹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정서발달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오지영농조합법인 마을 고도화사업 선정

임실군은 삼계면 소재 오지영농조합법인(대표 정순자)이 전북도가 실시한 2017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통한과를 생산하는 오지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유통?판매 정비, 공장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소규모 마을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교육청 청렴문화 연수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기 청렴문화체험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산 정약용의 얼이 깃든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수련원에서 청렴강의와 더불어 목민심서 낭독, 공직자로서 소명을 다짐하는 시간, 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연수를 통해 다산의 사상과 삶을 직접 보고 느껴봄으로써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지방공무원 연수 참여 활성화와 연수에 따른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수대상자를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로 구분,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대상자별 맞춤형 청렴 강의를 실시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풍산면 주민자치 난타, 품바 대상

풍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기옥종)가 최근 열린 제10회 서울무용예술 전국대회에서 국악부문에 풍산산울림난타 팀과 창극부문에 품바 팀이 참여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10회 서울무용예술 전국대회는 한국문화예술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전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국악과 창극부문에 전국에서 25개 팀이 출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풍산면 주민자치위원회 팀이 선정됐다.

풍산산울림난타와 품바 창극팀은 우수한 강사의 지도하에 각각 3년, 1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연습에 구슬땀을 흘려 결실을 맺은 걸로 알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이야기 안내꾼 모집

임실군은 '움직이는 안내소' 제2기 임실 이야기 안내꾼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전북 토탈관광사업(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역사, 문화, 관광 등에 지식을 고루 갖추고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선발된 인원은 16시간의 소양 교육을 마친 후 섬진강길 도보여행, 의견문화제, 사선문화제, 임실N치즈축제 등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 곳곳에 투입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명의 이야기 안내꾼을 선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